

##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정주에 대한 수요분석

윤순덕 · 박공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A Demand Analysis on Urbanites' Retired Life in the Countryside

Yoon, Soon Duck · Park, Gong Ju

Rural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BSTRACT** : Recently, due to the growing concern of the public in rural amenities and hobby farming works, much more urbanites, especially near-retirees, have been interested in rural life style than before. However, in spite of popular preference to ruralities, little has been known about their demand on retired rural lif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urbanites' attitude to preparatory works for out-migration, preferred residential site conditions and life style in the countryside.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a survey with the sample of 386 urban residents aged 40 to 65 who hoped moving into the countryside after retirement,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Descriptive statistical works were performed using SPSS/PC windows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Most of urbanites, who answered in this study, planned to prepare ex-urban movement in their fifties and to put into practice in their sixties. (2) Key factors of location decision on movement were proximity/accessibility to centre city, medical service level, and distance to their family or friends. And about a half of respondents wanted second home in the countryside. (3) Most favoured rural life styles were nature-friendly well-being and hobby/healthy farming. Generally, the respondents of this survey had the positive attitude to do works in their later life, especially preferred to farming and volunteering in their communities.

**Key words** : Retirement migration, Rural migration, Rural settlement, Work in later life

## 1. 서론

의료기술의 발달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건강한 노년기가 늘어나면서, 은퇴 후 30여 년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건강하고 가치 있게 사느냐가 노년기 삶의 질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런가하면, 한편에서는 도시의 과밀화, 국민소득 향상, 그리고 가치관 전환 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도시민의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동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던 노인들도 과거에 비해 노후를 즐기기에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보이며 경제적 이유 보다는 건강이나 심리적인 이유로 일을 노년기에도 계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과 연결시켜 도시의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농촌사회의 활

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수사회에서 농촌·농업이 갖는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려는 학문적 관심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백세인 조사에서 백세인의 대부분이 농촌에서 살고 있고, 직업이 있는 사람의 평균수명이 무직인 사람의 그것보다 14년 긴 것으로 밝혀지면서(박상철, 2002), 건강장수에 있어 농촌이 주는 환경적 요인과 일거리가 큰 주목을 받았다. 도시민이 직장생활을 마친 후 이주하여 살 수 있는 거주공간으로서 농촌의 잠재력을 탐색한 조사들(윤순덕 등, 2005a, 송미령 등, 2006)에 따르면, 도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었으며 이때 농촌의 환경적 흡인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수노인의 대부분이 일생동안 가장 오래 해 온 일이 농사일이고(박상철, 2002), 50세 이상 구직자의 90%가 단순노무직·농림어업에 취업하였으며(중앙고용정보관리소, 2002), 농업노동 참여가 남녀노인 모두의 고독감 해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윤순덕 등,

2004)는 선행연구결과들은 노후의 일거리로 농업노동이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농업은 정년없이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종사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상태나 형편에 따라 영농규모를 조절할 수 있으며, 건강이나 여가의 필요시에는 자발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가적으로는 노년기 농업노동이 공공부문으로부터 노인의 생계 및 의료복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사회복지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순덕 등, 2005b).

이러한 노년기 농촌생활과 영농이 주는 장점 때문에, 일본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은퇴한 노인세대들의 정년귀농 붐이 일어났다(農文協, 1998, 2000).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신규 취농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1995년에는 이들의 60%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인 정년귀농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內閣府, 2004). 이는 비농업부문 직업으로부터 은퇴한 노인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최근 증가함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일본 지자체가 복지·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시설을 갖추는 등 경제력 있는 노인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김동문, 2004).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서구에서는 도시 은퇴인구의 농촌이주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략으로서 1980년대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많은 연구들(Day & Barlett, 2000, Deller, 1995, Hodge, 1991, Reeder, 1998)은 은퇴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왔을 때 그 지역내 가구 수입의 증가, 실업률의 감소, 지역세수의 증가, 공공서비스의 유치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데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노인인구의 이동흐름을 살펴본 연구들(Judson 등, 1999, Wames & Law, 1982)도 노인인구는 고용기회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이동하는 젊은 층과는 달리 기후와 경관이 좋은 환경적 자원인 쾌적성에 의해 이동하는 경향으로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의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과거보다 이주동기가 강하다고 하였다. 미국인의 7~38%가 은퇴 후 장거리 이주계획이 있고(Deller, 1995), 이는 농촌이 은퇴자들의 최종 정착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하였다.

선진국의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농촌인구의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적 노인복지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농촌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농촌지역의 노인복지여건을 개선할 것인가, 과도한 농업노동으로부터 농촌노인을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인가에만 주목하여 왔다. 노후에 자연친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농촌과 전업경영이외의 경영형태로서 저장도의 농업활동, 이윤추구 이외의 여가선용이나 건강관리, 소득보충의

의미로서 은퇴 후 농업을 조망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년기 농촌생활과 영농을 통한 일은 목가적인 삶과 취미·여가형의 생산적 활동으로 노인들에게는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고 국가적으로는 사회복지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은 노인에게 건강에 유익한 쾌적한 환경과 농업을 통한 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해 성공적 노후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유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비 은퇴자인 장년층 도시민이 직장생활을 마친 후 이주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어떤 지역과 주거형태에서 정주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노후를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것은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며 지내고자 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도시은퇴자의 농촌유입을 위한 대안 마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 농촌이주 의향이 있는 40세 이상 도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 후 농촌정주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은퇴 후에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도시민이 구체적으로 은퇴 후 농촌에서의 삶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은퇴 후 농촌이주의향이 있는 40~65세의 도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4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우편 및 방문에 의한 자기기입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우편에 의한 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 2004년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 동안에 실시한 도시 중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에 대한 조사 응답자 1,972명 중에서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가 있으며 2차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여 설문지에 이름과 주소를 남긴 445명 중 주소가 불분명한 70명을 제외한 3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5부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왔고, 304부가 회수(회수율 82.2%)되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전화로 설문지 발송전에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조사기한을 넘은 경우에는 설문지 작성을 독려하였다. 조사대상자수를 늘리고자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는데, 이는 2004년 10월 중에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교육을 실시중인 서울·경기, 부산, 광주 등 3개 지역의 귀농학교를 방문하여 40~65세의 귀농희망자 95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방법에 의해 이

루어졌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 총 399부 중, 연령이 65세를 넘었거나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13명이 제외되어, 34개 특별·광역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386명의 설문지만이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설문구성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은퇴 후 농촌이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적었다. IMF를 경험하면서 늘기 시작한 귀농자들의 생활실태나 농촌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들(김일수, 1999, 김휘동, 1998, 신윤철 등, 1998, 이동하, 1998, 정한모, 2002, 최원규 등, 2001)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들 연구로부터 은퇴 후 농촌정주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구성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는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이주준비에서부터 정주까지 은퇴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영역과 항목들이 무엇일지에 대하여 연구원간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설문을 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설문내용은 크게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농촌이주계획, 농촌이주 지역·주택·주변시설, 희망하는 농촌생활 유형과 기대, 일과 영농 등 5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로 설문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은퇴 후 농촌이주 계획 영역에서는 은퇴 후 농촌이주에 대한 의향, 이주예정연령, 이주준비 정도 및 기간, 이주 전 귀농교육의 필요성, 은퇴 후에 예상되는 자산규모, 농촌이주에 투자 가능한 금액, 은퇴 후 소득 대비 월평균 생

활비 등을, 농촌이주 지역·주택·주변시설 영역에서는 도시민들이 희망하는 이주지역, 이주지역 선정시 고려하는 항목, 선호하는 주택유형, 주택마련방법, 적정 대지 및 건물 규모, 필요한 주변 주요시설을, 희망하는 농촌생활 유형과 기대 영역에서는 희망하는 농촌생활유형과 농촌생활에 대한 기대를, 그리고 일과 영농영역에서는 노년기 일에 대한 태도, 은퇴 후 하고자 하는 일의 종류 및 영농의 종류 등이다.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들 설문구성과 도구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3명으로부터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일부 질문표현의 수정이나 응답범주의 추가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잘 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 69.7%, 여성 30.3%로 남성이 2/3 이상을 차지하였고, 조사대상자의 94.3%는 배우자가 있었으며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형태가 74%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61.4%, 50대 33.7%, 60~65세 4.9% 순이었으며, 학력은 대졸이 39.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졸 31.9%, 대학원졸 이상도 23%나 되었다. 직업은 전문·관리직이 27.9%, 자영업·서비스직 22.9%, 사무직 22.1% 순이었으며, 월평균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27.9%, '400만원 이상' 27.9%, '300~400만원 미만' 22.4%, '200만원 미만' 21.9% 순이었다. 건강상태는 '좋은 편~매우 좋다'는 응답이 전체의 55.2%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36.5%이었다. 조사대상자의 53%가 특별·광역시에 살고 있었고, 주택을 자가 소유한 비율이 78.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386\*)

변수	구분	명(%)	변수	구분	명(%)
성 별	남성	269(69.7)	결혼상태	유배우	364(94.3)
	여성	117(30.3)		무배우	22( 5.7)
연 령 (M=48.2)	40~49세	237(61.4)	건강상태 (M=3.53)	매우 좋지 않다~좋지 않은 편	32( 8.3)
	50~59세	130(33.7)		보통	141(36.5)
	60~65세	19( 4.9)		좋은 편~매우 좋다	213(55.2)
학 령	중졸 이하	20( 5.2)	가족구조	1인, 부부가족	37( 9.6)
	고졸	122(31.9)		핵가족	285(74.0)
	대졸	152(39.8)		확대가족	54(14.0)
	대학원졸 이상	88(23.0)		기타	9( 2.3)
직 업	전문관리직	106(27.9)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84(21.9)
	사무직	84(22.1)		200~300만원 미만	107(27.9)
	생산노무직	21( 5.6)		300~400만원 미만	86(22.4)
	자영·서비스직	87(22.9)		400~500만원 미만	59(15.4)
	전업주부·기타	82(21.6)		500만원 이상	46(12.5)
현거주지	특·광역시	204(53.0)	주택소유 상태	자가	301(78.2)
	중소도시	181(47.0)		임대	84(21.8)

\*결측치로 인해 변수별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 III. 연구결과 및 논의

#### 1. 은퇴 후 농촌이주계획

은퇴 후 농촌이주계획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2 참조>, 먼저 은퇴 후 농촌이주에 대한 의향은 ‘매우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7.6%, ‘조금 있다’가 52.4%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주예정 연령은 60대가 58.8%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고 50대가 29.4%로 그 다음 많게 나타나, 이주연령은 50, 60대가 88.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송미령 등(2006)의 연구에서 이주희망시기로 50, 60대가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현재 이주를 위한 준비는 ‘전혀~별로 하지 않고 있음’이 45.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퇴직시기가 아직 10~20년 이상 남아있는 40대가 조사대상자의 61.4%를 차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가하면 ‘조금~아주 많이 준비함’도 30%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은퇴를 앞둔 50, 60대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주를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은 ‘1~2년 미만’이 29.9%로 가장 많았지만, ‘2~3년 미만’ 19.8%, ‘3~5년 미만’ 18.8%, ‘5년 이상’ 17.4%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마도 아직까지 이주준비를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막연하기 때문에 어렵짐작으로 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이주준비기간의 다양성은 이주준비를 마음의 준비에서부터 가족의 설득, 이주지역 선정, 주택구입, 일자리

마련 등 개인에 따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은퇴 후 경제적 상황을 예측하기 위하여 은퇴 후 예상 자산규모를 조사한 결과, ‘2~5억원’이 40.1%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 21.8%, ‘1억원 미만’ 19.2% 순이었으며, 농촌이주시 투자가 가능한 금액은 ‘1~2억원 미만’이 30.5%, ‘2~5억원 미만’ 24.9%, ‘5천만~1억원 미만’ 24.3% 순이었다. 또한 은퇴 후 예상되는 월평균 생활비 중 40~60%을 재산소득, 연금, 저축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비율이 30.2%로 가장 많았고, 20~40% 정도는 충당가능하다는 비율은 23.5%, 80~100% 충당은 18%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농촌이주를 희망하는 예비은퇴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다양함을 시사하며, 농촌이주자를 위한 노후설계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은퇴 후 예상되는 경제수준별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2. 농촌이주 지역 및 주택, 주변시설

먼저, 은퇴 후 농촌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이주지역과 이주지역 선정시 고려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도시은퇴인구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어디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은퇴인구의 유입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표 3>. 희망하는 이주지역은 대도시 근교, 중소도시 근교가 각각 52.6%, 52.1%였고, 대도시 근교는 평균 1시간 28분의 거리, 중소도시 근교는 1시간 8

표 2. 은퇴 후 농촌이주계획

변수	구분	명(%)	변수	구분	명(%)	
이주의사 정도	매우 많다	181(47.6)	이주예정 연령	40~49세	14( 3.8)	
	조금 있다	199(52.4)		50~59세	107(29.4)	
이주준비 정도	전혀 하지 않음	42(11.1)		이주준비기간	60~69세	314(58.8)
	별로 하지 않음	128(34.0)			70~90세	29( 8.0)
	보통	94(24.9)	1년 미만		54(14.0)	
	조금 준비함	92(24.4)	1~2년 미만		115(29.9)	
	아주 많이 준비함	21( 5.6)	2~3년 미만		76(19.8)	
은퇴 후 예상 자산규모	1억원 미만	57(19.2)	농촌이주시 투자가가능금액	3~5년 미만	72(18.8)	
	1~2억원 미만	56(18.8)		5년 이상	67(17.4)	
	2~5억원 미만	119(40.1)		5천만원 미만	38(12.5)	
	5~10억원 미만	39(13.0)		5천만~1억원 미만	74(24.3)	
	10억원 이상	26( 8.8)		1~2억원 미만	93(30.5)	
이주전 귀농교육 필요정도	약간~전혀 불필요	42(10.9)	은퇴 후 소득 vs. 예상월평균 생활비	2~5억원 미만	76(24.9)	
	그저 그렇다	13( 3.4)		5억원 이상	24( 7.8)	
	약간~매우 필요	331(85.7)		20% 미만	44(11.4)	
				20~40% 미만	89(23.5)	
				40~60% 미만	114(30.2)	
			60~80% 미만	63(16.7)		
			80~100%	68(18.0)		

\*결측치로 인해 변수별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분 이내의 거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읍·면지역을 선호하는 비율도 42%이었지만, 이 역시 도시에서 1시간 35분 정도의 소요 거리에 있는 지역을 선호하였다. 즉,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은 대도시근교나, 중소도시근교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읍면지역이나가 중요하게 고려되기 보다는 인근 중심 도시로부터의 접근시간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송미령 등(2006)의 연구에서는 도시근교지역(55.4%)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한 반면, 읍면소재지(17.8%), 원격지 농어촌(8.9%)으로의 희망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읍면지역을 중심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원격지역으로 이해하고 응답한데서 연유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주지역을 선정할 때 고려하게 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주변 의료기관'이 72.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노년기의 특성상 건강에 대한 염려와 질병 치료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 볼 수 있다. '가족·친구와의 왕래거리'도 63.5%가 응답을 보여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년기 새로운 곳으로의 이주는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서구에서의 노인인구이동 패턴에서도 노년기 새로운 주거지는 쾌적성이 주요 결정요인이지만, 그 안에서는 도움 요청을 위해 사회연결망이나 간호의 필요성이 주요 요인이었던 연구결과(손승영, 1990)와 일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항목은 '주변 편의시설'(48.4%), '대중교통수단'(35.8%), '교육·교양시설'(24.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희망하는 거주형태로는 농촌으로 완전히 이주한 형태가 53.1%이지만 출퇴근·부분거주·주말거주형태도 46.9%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 은퇴 후에 농촌으로 이주한다 하더라도 도시와 단절되지 않는 주거형태를 선호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한 은퇴인구의 과반수 정도는 농촌으로 완전히 이주하여 정착하는 형태를, 또 과반수의 정도는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형태의 이주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농촌이주 희망자들은 어떤 유형의 주택을 선호하고 주택마련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지 및 건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농촌이주민들의 주택수요 충족을 위한 상담이나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표 4>. 먼저, 희망하는 주택유형은 '기존 농촌마을에 속해 있는 단독주택'(36.7%), '전원주택단지'(29.4%), '마을과는 좀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한 단독주택'(18.8%), '소규모 동호인주택'(9.1%) 순으로 별도로 조성한 집합형 주거형태보다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농촌주택의 마련은 새로 지어진 건물이든 기존 주택이든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구입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78%로 단연 우세한 반면, 분양(13.9%)이나 신축(3.1%)을 희망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일정기간만 농촌에 머무르고자 하는 조사대상자의 비율이 약 47%이었는데도, 주택을 임차하겠다는 비율은 2.9%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 기존 농촌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하거나 신축된 건물을 개별 구매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지 규모 중 대지규모는 '200~500평'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고 '100~200평'이 35.5%의 응답을 보였다. 건물규모는 '25~35평'이 46.3%로 가장 많았으며, '50평 이상'도 21.6%이었지만 주택규모를 넓게 하기보다는 주거 이외의 대지공간을 더 넓게 사용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도시민들이 이주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가장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은 교통, 교육, 복지, 문화 등 농촌 생활여건 개선이었다(송미령 등, 2006). 특히, 노년기에는 환경에의 의존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환경적 지원성, 특히 근린생활권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편리하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쉬워야 하는 시설의 종류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표 5>. 조사결과, '버스정류장'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8.5%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농촌으로의 이주시 대중교통의 편리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등

표 3. 은퇴 후 희망하는 이주지역 및 주거형태

변 수	구분	명(%)
희망하는 이주지역 (중복응답)	대도시 근교(평균소요시간: 1시간 28분)	203(52.6)
	중소도시 근교(평균소요시간: 1시간 8분)	201(52.1)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읍·면지역(평균소요시간: 1시간 35분)	162(42.0)
이주지역 선정고려 항목 (중복응답)	주변 의료기관	279(72.3)
	가족·친구왕래거리	245(63.5)
	주변 편의시설	187(48.4)
	대중 교통수단	138(35.8)
	교육·교양시설	95(24.6)
	주변 공공시설	77(19.9)
	주변 운동시설	55(14.2)
주변 오락시설	6(1.6)	
희망하는 거주형태	농촌으로 완전히주한 형태	205(53.1)
	매일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출퇴근형태	35(9.1)
	주 3~4일만 농촌에서 거주하는 부분거주형태	116(30.1)
	주말에만 농촌에서 생활하는 주말거주형태	25(6.5)
	기타	5(1.3)

\*결측치로 인해 변수별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표 4. 은퇴 후 희망하는 농촌주택 유형 및 규모

변수	구분	명(%)	변수	구분	명(%)
선호하는 농촌주택 유형	기존 마을의 단독주택	141(36.7)	농촌주택 마련방법	개별 구입	298(78.0)
	전원주택단지	113(29.4)		분양	53(13.9)
	마을과 떨어진 한적한 곳의 단독주택	72(18.8)		신축	12( 3.1)
	소규모 동호인 주택	35( 9.1)		임차(전·월세)	11( 2.9)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연립주택, 빌라)	12( 3.1)		고향집	8( 2.1)
	실버타운, 노인형 주거단지	11( 2.9)			
적정 대지규모	100평 미만	59(15.6)	적정 건물규모	25평 미만	48(12.6)
	100~200평 미만	134(35.5)		25~35평 미만	176(46.3)
	200~500평 미만	142(37.5)		35~50평 미만	74(19.5)
	500평 이상	43(11.4)		50평 이상	82(21.6)

\*결측치로 인해 전체 조사대상자 수와 다를 수 있음

산로, 산책로, 약수터'(81.4%), 동년배끼리 모여 일상적으로 담소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71.9%),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슈퍼마켓'(66.1%), 간단한 치료나 약을 사먹을 수 있는 '보건소와 약국'(60.6%), '사회복지회관'(50.3%), '세탁소'(47.2%) 순으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런가하면, '경찰서와 소방서'(59.2%), '재래시장'(56.9%), '병원, 한의원'(52%), '우체국, 은행'(50.7%) 등의 시설은 버스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목욕탕, 찜질

방'(46.8%), '스포츠센터, 수영장'(45.8%), '노인전문병원, 요양시설'(44.1%), '미장원, 이발관'(43.6%), '컴퓨터방, 노래방'(41.3%) 순으로 나타났다. 교회, 성당, 절 등 '종교시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여야 한다는 응답이 39.8%, 버스로 30분 이내 거리여야 한다는 응답이 38.7%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화관, 백화점, 골프장'은 승용차로 1~2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노인이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마을 공간계획이나 근린생활권의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5. 은퇴 후 필요한 이주지역 주변시설에 대한 태도

단위 : %

항 목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버스로 30분 이내 거리	승용차로	
			1시간 이내 거리	2시간 이내 거리
버스정류장	88.5	9.4	1.8	0.3
등산·산책로, 약수터	81.4	13.1	4.7	0.8
경로당	71.9	19.7	6.6	1.8
슈퍼마켓, 식료품 가게	66.1	25.6	7.3	1.0
약국, 보건소	60.6	32.9	5.7	0.8
사회복지회관	50.3	38.5	9.9	1.3
세탁소	47.2	32.1	15.4	5.3
우체국, 은행, 읍면사무소	40.2	50.7	8.9	0.3
교회, 성당, 절	39.8	38.7	15.6	5.8
미장원, 이발관	37.3	43.6	15.7	3.4
병원, 한의원/한약방	36.6	52.0	11.0	0.5
재래시장	26.6	56.9	14.9	1.6
목욕탕, 찜질방	31.6	46.8	16.5	5.1
게이트볼장	29.9	37.5	23.7	8.9
노인전문병원, 요양시설	24.5	44.1	26.6	4.7
경찰서, 소방서	23.2	59.2	14.5	3.2
스포츠센터, 수영장	22.2	45.8	24.1	7.9
식당, 다방	20.1	40.2	26.1	13.6
컴퓨터방, 노래방	17.9	41.3	27.7	13.0
영화관	6.3	37.9	40.9	15.0
백화점	4.0	25.9	49.2	20.9
골프장	5.5	17.3	44.7	32.6

### 3. 은퇴 후 농촌생활유형

농촌이주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맑은 공기와 자연환경에서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건강추구형)', '텃밭을 가꾸어,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에게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자급자족형)', '취미 삼아 정원이나 화분을 가꾸며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여유로울 수 있는 생활(취미농업형)',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소득을 얻고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소득추구형)', '미술, 문학 등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예술활동형)' 등 5가지를 은퇴 후 희망하는 농촌생활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은퇴 후 농촌이주 희망자들이 농촌생활유형 각각에 대하여 어느 정도 희망하는지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먼저, 건강추구형에 대해서는 97.7%가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으며, 자급자족형 87.5%, 취미농업형 81.6%, 소득추구형 60.2%, 예술활동형 38.3%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민이 노년기에 농촌으로 이주하여 생활한다면, 대부분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자급자족농업이나 취미농업과 같이 소일거리 정도의 영농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60.2%는 노년기에 농촌으로 이주해서도 일을 통해 소득을 얻고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을

표 6. 은퇴 후 희망하는 농촌생활유형(1~5점)

단위 : 명(%)

항 목	전혀 하고싶지 않다	하고싶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하고싶은 편이다	매우 하고싶다	평균 (S.D.)
맑은 공기와 자연환경에서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	1 (0.3)	2 (0.5)	6 (1.6)	119 (30.9)	257 (66.8)	4.63 (.57)
텃밭을 가꾸며,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에게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	3 (0.8)	5 (1.3)	40 (10.4)	181 (47.0)	156 (40.5)	4.25 (.75)
취미 삼아 정원이나 화분을 가꾸며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여유로울 수 있는 생활	6 (1.6)	9 (2.4)	55 (14.5)	165 (43.4)	145 (38.2)	4.14 (.86)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소득을 얻고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	8 (2.1)	31 (8.1)	113 (29.6)	159 (41.6)	71 (18.6)	3.66 (.94)
미술, 문학 등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	19 (5.0)	52 (13.6)	164 (43.0)	85 (22.3)	61 (16.0)	3.31 (1.05)

\*결측치로 인해 변수별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희망하고 있다는 점은 은퇴 후 농촌에서 노인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희망하는 정도를 ‘전혀 하고 싶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하고 싶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5가지 삶의 유형 중 건강추구형 4.63점, 자급자족형 4.25점, 취미농업형 4.14점, 소득추구형 3.66점, 예술활동형 3.3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민이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기위해, 남은 인생을 농촌에서 텃밭 등을 가꾸며 살기위해’가 다수를 차지했던 연구결과(윤순덕 등, 2005a)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은퇴 후 농촌생활을 할 때, 도시와 비교하여 소요되는 생활비 감소 등 긍정적인 6개 기대 항목과 의료시설 이용 불편 등 부정적인 8개 기대 항목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조사결과<표 7>, 쾌적한 환경(90.4%), 육체적인 건강(90.7%), 정신적인 안정(89.4%), 생활 스트레스 감소

(87.3%), 생활비 규모 감소(75.1%) 순으로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시설 이용 불편(69.2%), 대중교통 불편(64.1%), 편의시설 이용 불편(60.6%) 등 생활여건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하였다. 송미령 등(2006)의 연구에서는 도시민이 생각하는 농어촌 생활의 불편사항으로 의료시설의 미비 다음으로 교육환경의 열악함을 꼽았고, 귀농자를 대상으로 한 김희동(1998)의 연구에서도 교육환경의 열악함을 가장 큰 불편사항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들 연구의 경우 응답자들이 20세 이상의 도시민이나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젊은 귀농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의 이주를 기본적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교육환경 불편에 대한 기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은퇴 후 농촌에서 생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지만, 불편함보다는 장점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은 은퇴 후 농촌생활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쾌적함, 정

표 7. 은퇴 후 농촌생활에 대한 기대(1~5점)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것이다	1.0	0.3	8.3	40.3	50.1	4.38( .74)
육체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것이다	0.0	0.5	8.8	58.2	32.5	4.23( .62)
정신적으로 보다 안정될 것이다	0.0	0.3	10.4	59.1	30.3	4.19( .62)
생활의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다	0.3	1.0	11.4	58.3	29.0	4.15( .67)
생활비가 적게 들 것이다	0.8	3.9	20.2	59.8	15.3	3.85( .75)
무료하지 않을 것이다	0.8	8.0	33.7	42.7	14.8	3.63( .86)
의료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이다	3.4	8.1	19.3	52.3	16.9	3.71( .95)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것이다	2.1	10.5	23.3	49.2	14.9	3.64( .93)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이다	3.7	10.4	25.3	47.8	12.8	3.56( .97)
취업 등 소득활동이 어려울 것이다	3.4	15.9	32.9	40.2	7.6	3.33( .95)
한적하여 치안에 위험이 있을 것이다	5.0	17.0	35.0	36.3	6.8	3.23( .98)
친구 등과의 교류가 줄어들 것이다	4.7	17.4	36.7	36.5	4.7	3.19( .94)
취미·문화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8.3	25.5	29.2	29.9	7.0	3.02(1.08)
이웃·주민들과의 교류가 어려울 것이다	9.4	38.1	31.9	18.5	2.1	2.66( .96)

표 8. 노년기 일에 대한 태도(1~5점)

단위 : 명(%)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나이가 들어서 일하는 것은 남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다.	183(49.5)	73(19.7)	98(26.5)	9( 2.4)	7( 1.9)	1.88( .80)
나이가 들어서 일하지 않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이 좋다.	41(10.9)	87(23.1)	115(30.5)	95(25.2)	39(10.3)	3.01(1.16)
나이가 들어서 일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	34( 8.8)	57(15.0)	158(41.6)	118(31.1)	13( 3.4)	3.05( .98)
나이가 들어 일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좋다.	4( 1.0)	3( 0.8)	26( 6.8)	188(49.0)	163(42.4)	4.31( .72)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다면 계속 일하는 것이 좋다.	5( 1.3)	7( 1.8)	35( 9.2)	176(46.1)	159(41.6)	4.25( .80)
나이가 들어 일하는 것은 무료함을 달랠 수 있어 좋다.	3( 0.8)	8( 2.1)	45(11.8)	205(53.7)	121(31.7)	4.13( .76)
나이가 들어 생활비에 모자람이 없더라도 일을 하는 것이 좋다.	3( 0.8)	8( 2.1)	52(13.6)	196(51.2)	124(32.4)	4.12( .78)

\*결측치로 인해 항목별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서적 안정, 신체적 건강 등이 생활의 불편함을 상당부분 상쇄시키기 때문에 생각된다.

#### 4. 은퇴 후 일과 영농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하여 이들은 무엇을 하며 지내고자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노년기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8>. ‘나이가 들어 일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좋다’(91.4%),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다면 계속 일하는 것이 좋다’(87.7%), ‘나이가 들어 일하는 것은 무료함을 달랠 수 있어 좋다’(85.4%), ‘나이가 들어 생활비에 모자람이 없더라도 일을 하는 것은 좋다’(83.6%) 순으로 노년기 일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나이가 들어서 일하는 것은 남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다’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69.2%가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였고, ‘나이가 들어서 일하지 않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어서 일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 각각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35.5%, 34.5%가 ‘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비록 직업에서 은퇴하였더라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음을 시사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은퇴 후에 농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낼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사일, 사회봉사활동, 예술활동, 전문직, 자영업, 서비스업, 단순노무취업 등 총 7개 종류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하고 싶은지를 조사하였다 <표 9>. ‘농사일’과 ‘사회봉사활동’ 각각에 대하여 조사 응답자의 77.5%, 70%가 ‘하고 싶은 편이다~매우 하고 싶다’에 응답하였다. 한편, ‘단순노무취업’(74.5%), ‘서비스업’(50.8%), ‘자영업’(48.4%)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편이다~전혀 하고 싶지 않다’와 같이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은퇴 후 농촌에서 소득과 관련된 일을 선호하기 보다는 육체적으로 가벼운 정도의 농사일과 정신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표 9. 은퇴 후 농촌에서 희망하는 일에 대한 태도(1~5점)

단위 : 명(%)

구 분	전혀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하고 싶은 편이다	매우 하고 싶다	평균 (S.D)
농사일(채소·화초 재배 등)	2( 0.5)	4( 1.0)	78(20.4)	193(50.0)	105(27.5)	4.03( .75)
사회봉사활동	2( 0.5)	11( 2.9)	102(26.6)	206(53.8)	62(16.2)	3.82( .75)
예술활동(음악, 미술, 문학 등)	11( 2.9)	64(17.0)	160(42.4)	98(26.0)	44(11.7)	3.27( .97)
전문직	48(12.8)	74(19.7)	113(30.1)	94(25.0)	47(12.5)	3.05(1.21)
자영업	67(17.7)	116(30.7)	112(29.6)	64(16.9)	19( 5.0)	2.61(1.11)
서비스업(팬션·민박·식당 등)	73(19.3)	119(31.5)	107(28.3)	59(15.6)	20( 5.3)	2.56(1.13)
단순노무취업(임노동업)	126(33.5)	154(41.0)	81(21.5)	14( 3.7)	1( 0.3)	1.96( .85)

\*결측치로 인해 항목별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표 10. 영농유형별 은퇴 후 영농에 대한 태도(1~5점)

단위 : %

항 목	전혀 하고싶지 않다	하고싶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하고싶은 편이다	매우 하고 싶다	평균 (S.D)
채소 재배	1.6	1.3	24.0	52.0	21.1	3.9(.80)
정원·화초 가꾸기	1.6	2.2	31.5	40.2	24.5	3.8(.88)
과수 재배	9.4	20.3	35.6	24.7	10.0	3.1(1.11)
전통식품 만들기	10.8	21.1	34.3	22.7	11.1	3.0(1.15)
특용작물 재배	9.0	22.8	40.2	19.9	8.1	3.0(1.06)
곡식 재배	11.2	23.2	39.9	19.0	6.7	2.9(1.06)
묘목 기르기	11.6	25.6	39.4	17.9	5.5	2.8(1.04)
애완동물 가꾸기	23.3	28.0	30.2	12.5	6.1	2.5(1.15)
가축 기르기	22.9	27.3	30.7	13.3	5.8	2.5(1.16)
관광농원 운영하기	20.9	31.0	29.9	12.3	5.9	2.5(1.13)
꽃별 기르기	25.1	33.9	24.2	11.8	5.0	2.4(1.13)
물고기 기르기	25.6	34.4	25.1	11.3	3.7	2.3(1.09)
식당 운영하기	36.7	34.2	23.8	4.5	0.8	2.0(.93)

\*결측치로 인해 항목별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살기를 희망함을 알 수 있다. 즉,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하는 노인들의 일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이들이 주로 원하는 일의 형태는 고용된 취업보다는 농사일과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이었다. 따라서 이주은퇴인구를 위한 이러한 종류의 일자리 개발과 이를 연계해주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농사일 중 주로 어떤 유형의 영농을 하고 싶어 하는 지를 물었다. 채소재배, 정원·화초 가꾸기, 과수재배, 전통식품 만들기, 특용작물 재배, 곡식재배, 묘목 가꾸기, 애완동물 기르기, 가축 기르기, 관광농원 운영하기, 꽃별 기르기, 물고기 기르기, 식당 운영하기 등 13가지 영농활동유형 각각에 대하여 희망정도를 살펴본 결과<표 10>, 배추, 무, 상추 같은 채소 재배(73.1%), 야생화 등 정원·화초 가꾸기(64.7%), 된장, 김치 등 전통식품 만들기(33.8%)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 은퇴자들의 지역사회활동을 돕는 자원봉사활동 교육과정 뿐 만 아니라 귀농교육이나 영농교육에서 채소 재배, 원예, 전통식품 제조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한다면, 이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V. 요약 및 결론

최근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막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문제 완화 및

도농균형사회를 실현하고자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도시은퇴자의 농촌 유인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도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소일거리로서의 일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거주공간으로서 농촌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 도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농촌유입정책 마련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생활과 일터로서의 농촌의 잠재력을 탐색하고자, 과연 은퇴 후 농촌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주지역 및 주거형태에 대한 선호도, 노후 농촌생활에 대한 기대, 그리고 노년기 일과 영농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노인에게 쾌적한 환경과 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 즉, 노년기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생산적 노인복지대안으로서 은퇴 후 가능한 영농의 형태를 파악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국 34개 특별·광역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은퇴 후 농촌이주 희망자 386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농촌이주시점의 연령은 60대 58.8%, 50대 29.4%로 5·60대가 전체의 88.2%를 차지하였고 조사대상자의 30%가 현재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주를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은 1년에서부터 5년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였는데 이는 이주준비를 마음의 준비에서부터 가족의 설득, 이주지역 선정, 주택구입, 일자리 마련 등 어디까지로 개인이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주희망자들의 은퇴 후 예상되는 경제적 수준도 매우 달랐다. 따라서 은퇴 후 이주준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찾아내고 이주예정자가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단기간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경제수준별 노후설계 상담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은 대도시근교나, 중소도시근교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읍면지역이나 보다는 인근 중심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관건으로, 약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 소요시간을 선호하였다. 이주지역을 선정할 때는 또한 의료기관이 있는지와 가족·친구와의 왕래거리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이 도시은퇴노인을 위한 지속적 보호단지(Continuing Care Community)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료·교통편의 기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함을 시사하였다. 은퇴 후 농촌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53.1%는 농촌으로의 완전이주를 원하는 반면, 46.9%는 주 3~4일 또는 주말만 농촌에 거주하거나 출퇴근 하는 부분거주형태, 일명 별택(Second Home)형태를 선호하였다. 이는 향후 농촌정주의 개념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선호하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55.5%로 가장 많았고 전원주거단지는 29.4%로 도시민의 이주수요를 감안하여 도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농촌이주 희망자의 거의 대부분이 은퇴 후 농촌에서 ‘맑은 공기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건강을 유지하면서’, ‘정원이나 화분을 가꾸며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하는 바, 노년기에는 자연친화적인 삶을 향유하면서 소득농업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취미·여가농업’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농촌생활에서 불편함 보다는 장점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였는데, 의료시설의 이용이나 교통여건의 미흡으로 인한 불편함이 은퇴 후 농촌생활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쾌적함, 정서적 안정, 신체적 건강 등에 의해 상당부분 상쇄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노년기 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은퇴 후 농촌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내고자 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일 보다는 육체적으로 가벼운 정도의 농사일과 정신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이 주로 원하는 일의 형태는 고용된 취업보다는 농사일과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이었다. 따라서 이주은퇴인구를 위한 이러한 종류의 일자리 개발과 이를 연계해주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겠다. 영농에 대한 더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채소재배(73.1%), 야생화 등 정원·화초 가꾸기(64.7%), 전통식품 만들기(33.8%)를 선호하였다. 따라서 도시 은퇴자들의 지역사회활동

을 돕는 자원봉사활동 교육과정 뿐 만 아니라 귀농교육이나 영농교육에서 채소 재배, 원예, 전통식품 제조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한다면, 이들이 농촌에 들어가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후에 농촌생활을 겸한 적절한 농업노동은 육체적인 건강 유지 뿐 만 아니라, 조그마한 수입에서도 풍부함을 경험하게 하여 노년기를 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래 노년층이자 농촌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 이동이 이루어지는 10~20년 후에도 이들이 희망하는 삶의 모습에 변함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미래 농촌정주 인구가 될 예비 도시은퇴자의 농촌정주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도시 은퇴인구의 농촌유입정책 마련, 농촌지역사회의 공간계획 수립, 노인주거모델 개발, 은퇴자를 위한 귀농교육과정 개발 등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으로 이주하여 도시 은퇴자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취미나 여가의 형태로 즐길 수 있는 노년기의 영농유형 개발 및 정책 지원이 향후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농촌진흥청 2004~2005년도 국책기술개발과제인 “실버농업 모델 유형 개발” 연구결과의 일부임.

## 참고문헌

1. 김동문, 2004, 야마토마치에서 만난 노인들, 궁리
2. 김일수, 1999, 도시민 귀농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최고관리자과정 논문집 15 : 149-158
3. 김휘동, 1998, 21세기를 향한 지역 귀농대책의 방향, 경북대 지역농정 특별세미나 논문집
4. 內閣府, 2004, 高齢社會白書, 內閣府
5. 農文協, 1998, 정년귀농 -6만명의 인생이모작-, 현대농업
6. 農文協, 2000, 정년귀농 -100만명의 인생이모작-, 현대농업
7. 박상철, 2002, 한국 백세인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8. 손승영, 1990, 노령인구이동의 요인분석 :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미 동북부의 경우, 한국사회학 제24집(겨울호) : 121-147
9. 송미령, 성주인, 2006, 도시민의 농촌지향 수요와 농

- 촌의 미래상, 2006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신윤철, 김동섭, 배성익, 윤준상, 1998, 귀농자의 귀농 동기 및 배경특성 분석, 공주대학교 산업개발연구 6 : 59-70
  11. 윤순덕, 한경혜, 2004, 생산적 활동과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4(2) : 57-77
  12. 윤순덕, 강경하, 박공주, 이정화, 2005a,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5(3) : 139-153
  13. 윤순덕, 박공주, 강경하, 2005b, 노년기 농업노동의 사회복지비용 절감효과 분석, 한국노년학 25(2) : 109-126
  14. 이동하, 1998, 귀농자의 농촌적응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정한모, 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중앙고용정보관리소, 2002, 고령자취업가이드, 중앙고용정보관리소
  17. 최원규, 백승우, 2001, IMF 이후 귀농자의 실태와 정착방안, 사회복지 전문출판 나눔의 집
  18. Day, F. A. & Barlett, J. M., 2000, Economic Impact of Retirement Migration on the Texas Hill Countr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9(1) : 78-94
  19. Deller, S. C., 1995, Economic Impact of Retirement Migratio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9(1) : 25-38
  20. Hodge, G., 1991, The Economic Impact of Retirees on Smaller Communities: Concepts and Findings from Three Canadian Studies. *Research on Aging* 13(1) : 39-54
  21. Judson, D. H., Reynolds-Scanlon, S., & Popoff, C. L., 1999, Migrants to Oregon in the 1990's: Working Age, Near-retirees, and Retirees Make Different Destination Choices, *Rural Development Perspectives* 14(2) : 24-31
  22. Reeder, R. J., 1998, Retiree-Attraction Policies for Rural Development, Food and Rural Economics Division, Economic Research Service, U. S.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e Information Bulletin*, No. 741 : 1-22
  23. Warnes, A. M. & Law, C. M., 1982, The Destination Decision in Retirement Migration, In A. M. Warnes (Ed.),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the Elderly*(pp. 53-81), Chichester: Wiley